

MONT
BLANC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8
vol.177



Creating new heights

탐험 정신을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montblanc.com/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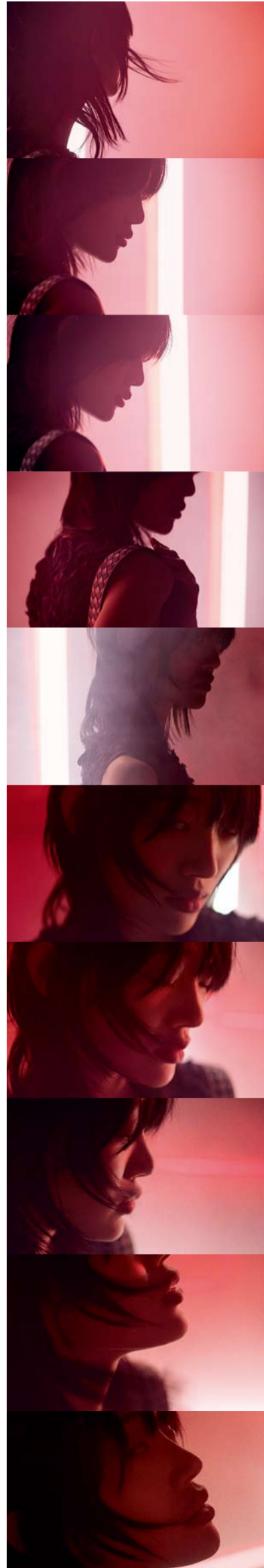


Van Cleef & Arpels



BVLGARI
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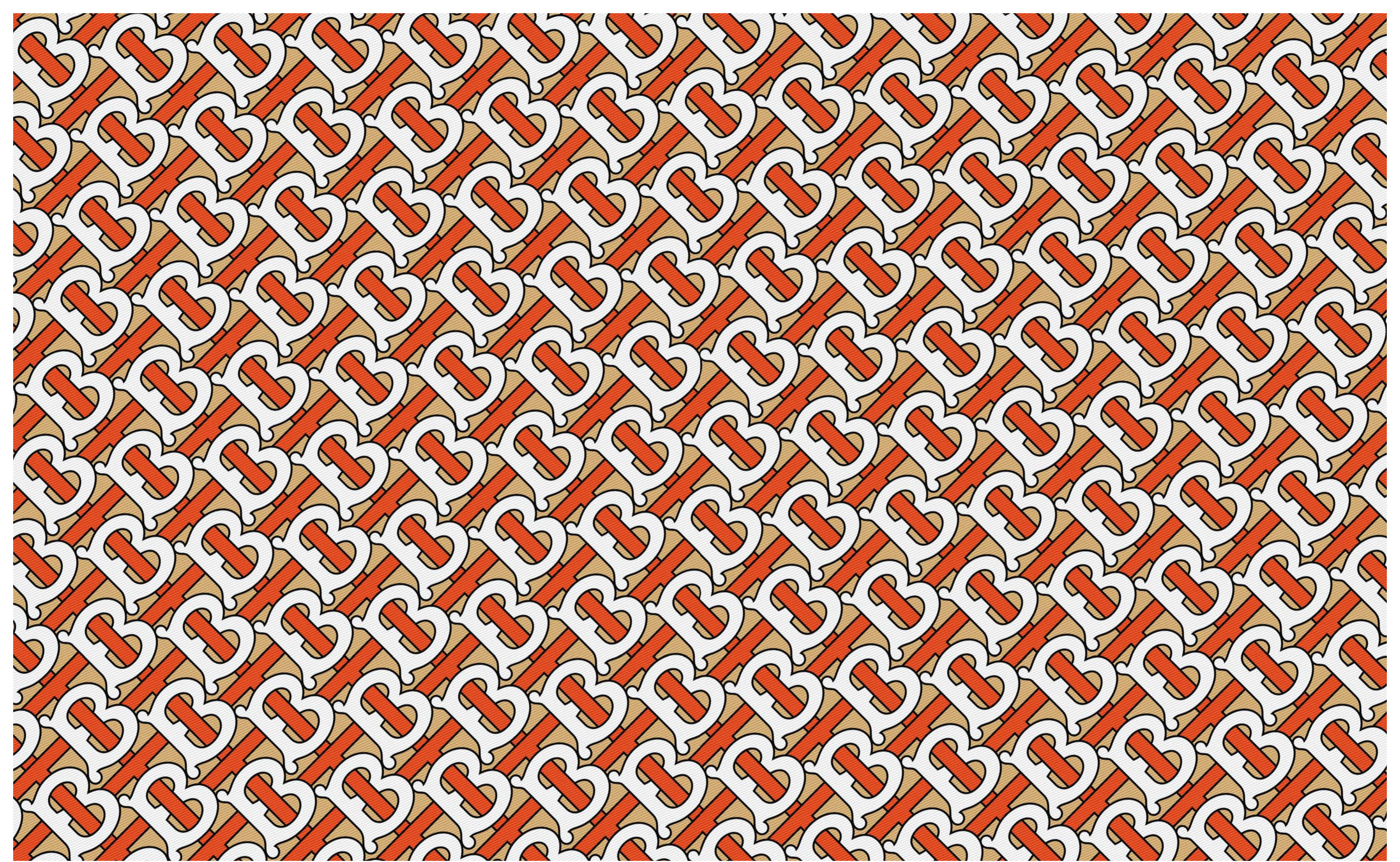
DIVAS' DREAM
BVLGARI.COM



INTUITION/
SHORT FILMS BY F.B.
#1. BLACKOUT
WITH S.C./ T.S.
BOTTEGAVENETA.COM
#BVINTUITION



BOTTEGA VENETA



BURBERRY

LONDON ENGLAND

17 SEPTEMBER 2018



Loro Piana



CLASSIQUE 7787
HISTORY IS STILL BEING WRITTEN...

윈스턴 처칠 (1874-1965)
아이코닉 클라이언트 - WWW.BREGUET.COM

Breguet
Depuis 1775



MASTER CHRONOMETER:
RAISING STANDARDS

Behind the elegance of every Master Chronometer timepiece is the highest level of testing: 8 tests over 10 days, to ensure superior precision and anti-magnetic resistance. We've raised our standards. You can too.

GLOBEMASTER 39 MM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28



3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반클레프 아펠의 베를리 컬렉션이다. 골드 고유의 빛과 모던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베를리 브레이슬릿은 매종의 독보적인 하이 주얼리 메이킹 기술을 통해 완성된 정교한 골드 비즈와 투명한 다이아몬드의 눈부심이 조화를 이루며 반클레프 아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의 00798-852-1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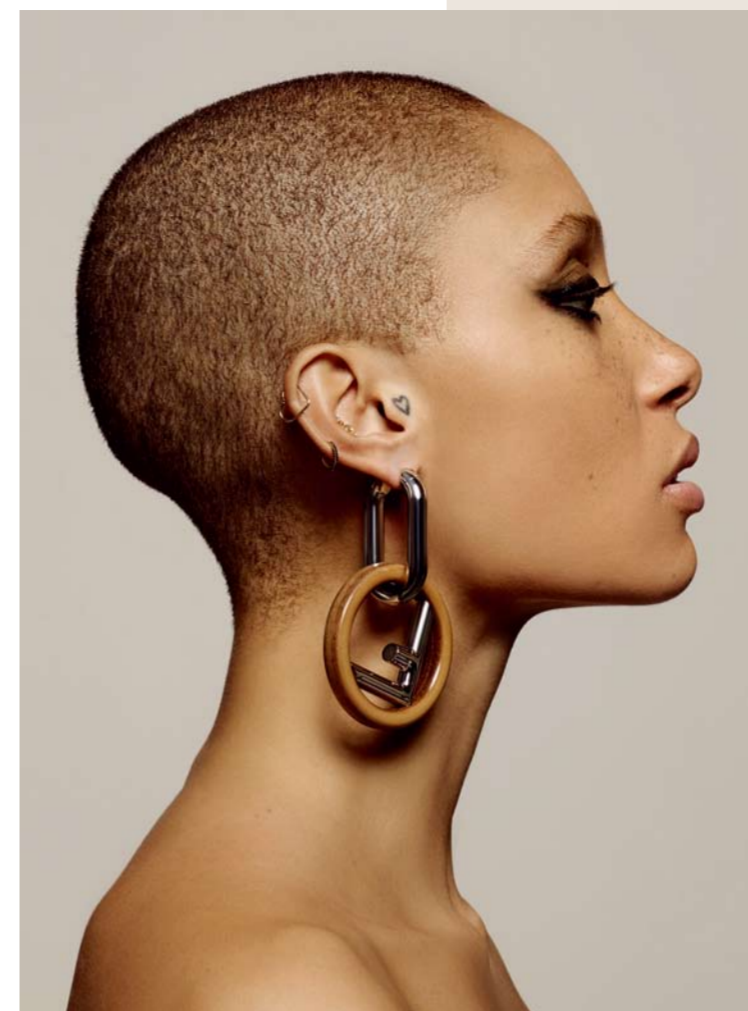


30



20

- 22 **질투는 나의 힘, 예술가들의 우정과 사랑 속에서 불뛴던 경쟁** 율가를 개봉 예정작인 (파이널 포트레이트)는 위대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피카소가 질투했단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한다. 피카소가 자코메티를 높이 평가한 건 사실이겠지만, 사실 그의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아티스트는 앙리 마티스였다. 둘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예술가로서 성장해 갔다. 실제로 피카소는 "내 그림의 배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마티스다. 그는 나의 영원한 멘토이자 라이벌이다"라고 했고, 마티스 역시 피카소를 늘 주시했다. 이 같은 경쟁 관계는 반드시 대등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단 두 명의 감정만 반영되기도는 훨씬 더 복잡 다단하게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술혼에 긍정적 추동력이 된 경우도 많다.
- 24 **CREATE AN ART**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이 담긴, 존재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예술품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
- 26 **TIMELESS CHARMING** 여성 위치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도 그 빛이 바래지 않는다. 손목 위에 작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클래식한 여성 위치 컬렉션.
- 28 **ELEGANT NIGHT** 특별한 자리에서 여성을 더욱 빛내줄, 브랜드 저마다의 절정에 이른 크래프트맨십이 돋보이는 화려하고 우아한 자제의 이브닝 백 & 슈즈.
- 30 **THE ELEGANCE OF MONACO** 기수와 말이 각인된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한 1878년부터 이어져온 승마에 대한 문진의 길고 긴 스토리. 올해 모나코에서 펼쳐진 론진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Longines Global Champions Tour)에서 만난 론진의 양배서터 정우성과 론진, 승마 챔피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
- 38 **WHEN ICONS COLLABORATE** 돔 페리뇽(Dom Pérignon)을 가리켜 누군가는 '샴페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샴페인의 여왕'이라 부른다. 이러한 견해 차는 자마다 다른 연상 작용과 기준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프레스티지 브랜드인 샴페인의 상징과도 같은 이 강력한 브랜드에 관련해 적어도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게 있다. 창조적 협업의 고수라는 점이다. 세기의 아티스트 앤드 워홀을 '슈퍼 팬으로' 뒀던 역사를 지닌 브랜드답게 패션계의 살아 있는 전설 칼라벨트, 창조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현대미술계 익스트림 스타 제프 쿤스 등 내로라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손잡고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는 미국의 록 스타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다. 그것도 단순한 모델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격이다. 프랑스에서 그 현장을 보고 왔다.
- 40 **캔버스에 담긴 황용엽의 삶의 증언** 인간이 숙명적으로 겪는 고통과 절망, 치유와 회복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캔버스에 담아내는 황용엽. 60년 넘도록 사류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해온 자화상 같은 인간성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동시에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대변한다. 1989년 제정된 이중섭미술상의 첫 번째 수상자이기도 한 황용엽의 개인전은 일관된 주제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노장의 아름다운 예술혼을 느끼게 한다.
- 41 **EDITOR'S PICK** 가을을 맞아 지금, 당신의 확장에도 재장치가 필요하다.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공개하는 뷰티 신제품.



FENDI.COM

Style 조선일보

Issue.177 September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우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



프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Jewel MODERN CLASSIC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던 주얼리 컬렉션.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 다이아몬드 7줄 위에 떠 있는 듯한 벨란스 다이아몬드 파베 아이링 5백50만 원대 **타피니**, 이색스러운 동백꽃 패턴이 아름다운 부동 드 가멜리아 네크리스 6백만 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T 모터블로 인체적으로 표현한 타피니 T 컬렉션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타피니**, 감촉이 있는 체이인 모던한 다이아몬드 코크 크러쉬 네크리스 5백만 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로즈 골드에서 플라워 모티브를 표현한 머더오브필로 순수함을 다한 링 1백만 원대 **오에가**, 에디터 **베미진**

Living THE ART OF CRYSTAL

감성스럽게 찾아온 가을을 맞아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길 원하는 이들을 위한 바카리의 특별한 제안.

한두 개 아이템으로도 거실 또는 침실, 스타일의 풍경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여기, 1764년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최상의 크리스탈 공예 제품을 선보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리(Baccarat)를 নিয়ে 겨보자. 2백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유서 깊은 아카이브를 자랑하는 바카리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브랜드다. 빛을 받으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크리스탈 제품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어디에 놓든 로맨틱하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때문. 아시아 최초로 서울 남산에 오픈한 바카리 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어지는데,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담긴 눈부시게 화려하고 거대한 상층이층을 중심으로 각종 리빙 소품과 크리스탈 글라스 등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이 즐비하다. 이번 시즌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아이템은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필립 스톱과 협업해 완성한 '봉쥬르 베르사이유(BON JOUR VERSAILLES)' 컬렉션이다. 특히 집안 어디에 놓아도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로 탈바꿈시켜줄 봉쥬르 베르사이유 램프는 바카리의 아이코닉한 작품을 연상시키는, 정교하게 조각된 크리스탈 스탠드 위에 램프를 올려 더욱 특별하다. 상단에 장식된 크롬 플레이트와 FLOS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LED 에지 라이팅의 결합이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킨 것. 이런 창의적인 시스템은 우아한 플라즈마 패턴의 세이드를 통해 자연적인 빛을 발산시켜 공간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램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투명하게 반사되는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시각 효과가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해줄 것이다. 이처럼 당신의 일상에도 찬란한 반짝임이 머물기를 바라다면 바카리 매장을 방문해보자. 문의 02-3448-3778 에디터 **이지연**



프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eauty A SPECIAL CHOICE

코미널로 프리미엄 치약인 전성시대다. 하루 세 번, 내 입속 건강을 책임지는 치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유해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성분의 '착한' 치약들이 대거 선보이고 있는 것. 그간 해외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유럽 프리미엄 덴탈 브랜드들도 프리미엄 치약 열풍 대열에 합류했으니, 욕실에 두는 것만으로도 엔테리아 효과까지 특별히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덴탈 아이템에 주목하라!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캐나다로 미국농무부(USDA)에서 인증한 유기농 원료를 70% 이상 함유한 일반 천연 치약과는 차원이 다른 유기농 치약, **뉘터브로너스 아나솔-원치약**은 제품 전체에 전성분을 공개한 안전한 치약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제품, 파란색을 포함해 인공 향, 색소 등 모든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치아 불소층의 부식율이 있는 불소 대신 코코넛 오일, 아나솔 씨앗 오일 등의 천연 성분을 더해 충치와 치석, 치태 등을 제거해준다(150ml 1만 원대). 프랑스 파리의 감각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파카와 제품으로 시원해지는 뷰티 브랜드 **볼리** 1803의 **'월리 1803 덴탈 클로즈'**는 천연 알갱이로 구성된 유기농 코코넛으로 만들어 민감한 잇몸이나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프리미엄 치약이다. 신택한 세 가지 향으로 구성해 치실 사용 후 입안을 더욱 상쾌하게 해주고, 시원감 중이 때때로 만들어 휴대 또한 간편하다(3g 2만 원대). 'The Art of Mini'라는 슬로건 아래 생채색 신상하고 독창적인 미니 향이 돋보이는 **슬로비안과 자민인민트**는 프랑스 LVMH 화장품 그룹 연구소 소성을 역임한 수석 조향사 프라데릭 베르델이 개발해 고급스럽고 독보적인 맛과 향을 선사한다. 멘톨, 녹차, 석류 등 천연 식물 성분과 유기농 인공 칼렌듈라, 로즈메리 성분을 함유해 구취 제거와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35g 9천 원). 이탈리아 여행의 필수 소품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치약 브랜드 마비스 가드리아 한국에 상륙했다. 맛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으로 천연 재료인 민트에 다양한 맛을 가미해 기분 좋은 맛과 향을 오랜 시간 안에 머무르도록 한 마비스 치약은 양치 시간도 더욱 즐겁게 할 것. 특 쓰는 생강의 매운맛이 특징인 **마비스 진지 민트 치약**은 입안을 편안하게 하면서 치석 침착을 방지하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85ml 1만 4천 원대). **보-비츠 로얄 케어비엔 치약**은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유기농 시과, 청정 자연인 호주산 프로폴리스 성분을 담아 구강 면역력을 키우고 치원이 다른 입속 솔루션을 제시한다. 구취 예방을 위해 해방루핀산과 각종 천연 에센셜 오일을 더해 입이 마르지 않게 하고, 오랜 시간 향긋한 향을 유지할 수 있게 고안한 201 특강이다(120g 1만 5천 원). **브리시엔에틱 치약**은 녹차, 세이지, 알로에 베라, 캐머미일 등 천연 유래 성분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안심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치약. 연화제 중 입자 크기가 가장 균일한 이산화규소를 더해 치태 제거 효과가 탁월하며, 충치 예방과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이다(150g 1만 6천 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호텔에서 즐기는 그림 쇼핑, AHAF SEOUL 2018

요즘 미술 작품이 갤러리나 대형 전시장의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판매되는 건 그리 '이색적'이라 할 수 없다. 호텔 객실과 연회장 같은 공간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호텔 아트 페어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그림 쇼핑이 아니라 미술과 함께하는 '호캉스'로서의 매력도 돋보이는 문화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 미술 시장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아시아 아트넷의 주최로 개최되는 AHAF(Asia Hotel Art Fair) SEOUL은 올해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17회를 맞이한 AHAF는 2008년 일본 뉴 오타니 호텔에서 시작된 이래 홍콩과 서울에서 해마다 2회에 걸쳐 열리면서 아시아를 아우르는 호텔 아트 페어로 자리 잡았다. AHAF SEOUL 2018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됐다(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호텔 내 7개 객실과 연회장을 수놓은 참여 갤러리는 60개로, 아어에는 10개국에서 찾아온 해외 갤러리도 포함돼 있다. 참여 작가 는 약 3백70명, 출품작은 2천5백50여 점에 이른다. 국내 주요 은행의 PB 고객과 주요 백화점 VIP 고객, 그리고 홍콩, 미국, 중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 대만,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초청된 컬렉터들이 AHAF SEOUL을 찾았다. 폭염 속의 미술 감상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대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호텔 로비와 연회장에서 펼쳐진 'Moon Jars'와 'Steel Life' 같은 특별한 물놀이,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민천과 공연, 클래식 연주, 국악 캠페이션 공연,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와 시인회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오감을 사로잡았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윤형근·이상자·이강소·유영국... 올 하반기를 수놓을 K아트스트 전시

올 가을 국내 주요 작가들의 전시가 풍성하게 열려 주목된다. 최근 조선시대 화조도의 미술 담이본 (민화, 현대)를 만나다: 조선시대 꽃그림전을 성황리에 마친 갤러리 현대는 9월에는 이강소 화백의 개인전과 이상자 탄생 1백주년 기념전을 마련했다. 이강소 작가의 개인전 (소말)은 작가의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소말', 1975년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달 파르나스 무제 - 75031' 등 실험적 행보가 돋보이는 1970년대 대표작을 접할 수 있는 전시라 눈길을 끈다.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갤러리 현대는 또 이상자(1918~2009)의 개인전 (탄생 100주년 기념 전, 이상자: 1956-1968)을 본관에서 선보인다(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1960년대 프랑스파는 특정 사재를 배경으로 한 여성성이 담긴 30여 점을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다. 이상자 작가는 1950년대 초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파리로 건너가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다 회화로 노선을 변경했다. 국제갤러리는 한국 추상미술 1세대 화가인 유영국의 개인전 (Colors from Nature)전을 연다(9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 단색화의 거목으로 추앙받는 윤형근(1928~2007)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MMCA 서울에서 오는 12월 16일까지). 실의 여정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4부로 나눠 소개하는 전시로, 장인인 김환기, 미·탈리즘의 대가 도널드 저드 등 생전에 작가가 친분을 나눈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비롯해 고구려, 일기, 염사 등 시후 유족이 보관해온 작품과 자료를 대거 공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전에서는 46세 나이로 요절한 설치미술가 박이소의 일생을 조명할 '박이소: 기록과 기억'이 오는 12월 16일까지 계속된다. 에디터 **고성연**

PRADA



PAUL DANO MILAN, APRIL 2018



강렬한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 드레스 섹이 만원 빌렌티노.

스타이 디제이 브라운은 유아용 80cm, 88cm, 94cm 사이즈로, 1백1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백17cm, 1백5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백17cm, 1백5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FF 로고 패턴이 신성한 로코 스타일은 1백3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LV 같은 뷰티 케이스의 형태를 차용한 배너 백. 15x17cm, 9백1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for her Selection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물결을 지나, 패션계에 다시 불어온 모노크롬 웨이브. 여성을 가장 근사하게 만들어줄 블랙 & 화이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파라디드 오프의 스타드를 얹어 시계 다이얼이 보이는 에도르 락 더블 스트랩 워치 섹이 만원 에르메스.

화이트 크리스탈 필과 블랙 크리스탈이 어우러진 드림 이어링 21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브렌드 로고 디테일의 가죽 벨트 7만원 산비토레 페라기오.

블랙 에. 펠 태슬 로퍼 1백92만5천원 토즈.

이르 데코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소재를 기하학적인 형태를 완성한 링 1백16만원 보타가 배너타.

렌즈와 테를 잇는 브리지 디자인이 유니크한 선글라스 29만5천원 포아레 by 한복.

강아지를 형상화한 가죽 백 장 신발 2만5천원 토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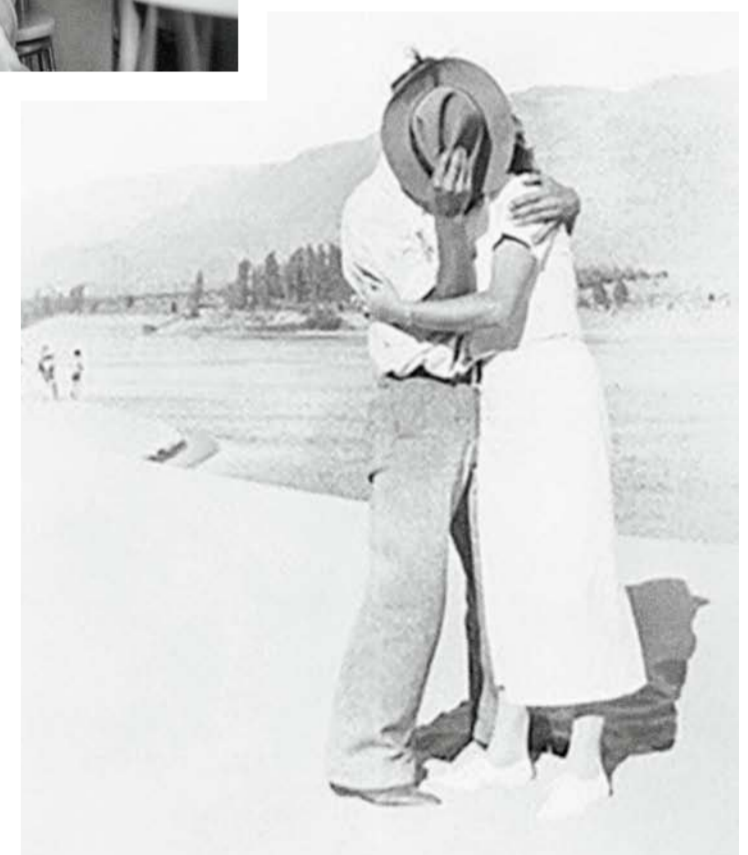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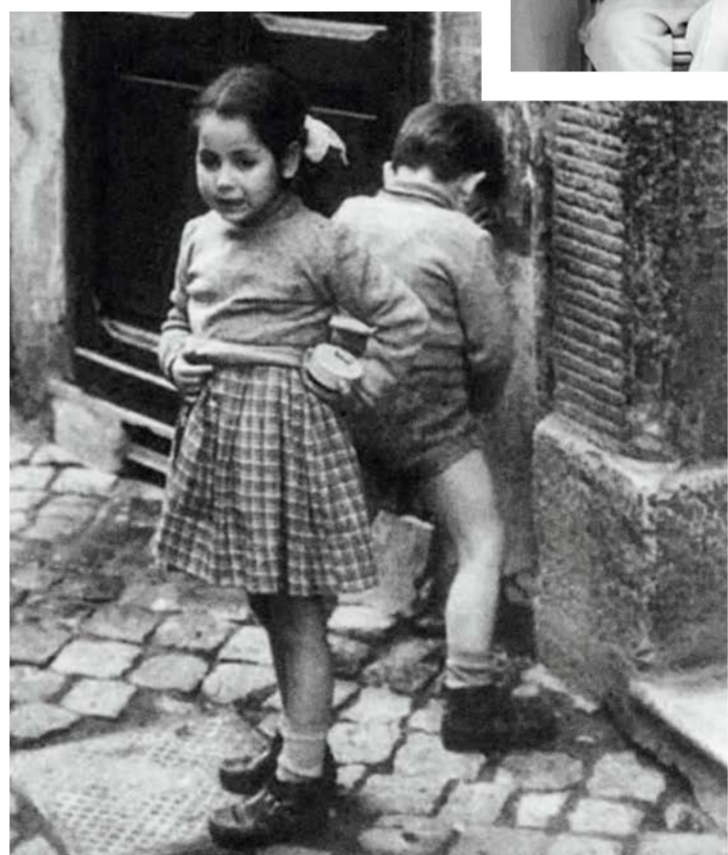


촉촉히 장식된 버튼과 귀여운 후드 디테일의 가디언 울 코트 4백90만원 구찌.

- 구찌 1577-1921
- 사넬 02-543-8700
- 빌렌티노 02-2015-4653
- 룩스토가 코리아 02-501-4436
- 파비어나 필리피 02-6960-0841
- 산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 보타가 배너타 02-3438-7682
- 펜디 02-2066-9023
- 바버리 080-700-8800
- 루이 비통 02-3432-1854
- 스와로브스키 1661-9080
- 토즈 02-3438-6008
- 볼가리 02-2066-0172
- 한복 02-774-0640
- 롤 포드 02-6905-3640
- 에르메스 02-3015-3283

HUMAN PRIVACY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올림 디자인의 에터 블루치
39x27cm, 2백30만원 **벨루티**.

스포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메탈
프레임 선글라스
39만7천원 **프라다 by
룩스타카 코리아**.

독특한 무늬의 실크 소재 포켓 스카어
21만원 **돌포드**.

링크 파를 더한 휴대용
케이스 39만9천원
ygy by 마이분.

새로운 VL TN 로고 디테일의 카본 컬러 3백70만원 **발렌티노**.

심플한 화이트 스타츠 소재 앤디 스타츠
80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비카렐로**.

신뢰할 수 있는 가죽 케이스 119,900원 **엘비 by 루나분**.

세련된 블랙
보트에 담긴
2009 올해의
30만 원대
폼 페리뇽.

말 모던 보츠카 장신의 벨트 핏
1백만 원대 **에르메스**.

만느그림 캔버스 힐트와
브렌드 영웅 새긴 금속 단추, 라이트
마이트로 소재의 밑창이 특징인
다비 슈즈 1백45만원 **루이 비통**.

발리온 패턴 블랙
다이얼에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을 애착한
론진 마스터 컬렉션
2백81만원 **론진**.

for him Selection

흑과 백으로 정의된 이번 시즌 F/W 키 컬러를 입은, 남성을 위한 패션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화이트 티셔츠, 블랙 캐시미어 카디건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제나 구뎀**.

5백57개의 블랙
크리스탈로 장식
베이지의 요소를
반영한 앙투아네
스외로브스키.

크로스 보디 백과 백백으로도 사용
가능한 시그니처 로고 자우(JAW) 백,
37x55cm, 2백30만원대 **자정시**.

올림 디자인의 버클 포인트 브라운 케이스
39x29cm, 1천만원대 **벨루티**.

론진 02-6905-3519
벨루티 02-547-1895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돌포드 02-6905-3534
생 로랑 by 안토니 비카렐로 02-6905-3924
에르메스 제나 구뎀 02-518-0285
마이분 02-6947-1270
발렌티노 02-2015-4653
유니페어 02-542-0370
스외로브스키 1661-9080
에르메스 02-542-6622
폼 페리뇽 02-2188-5100
엘보 02-3449-5916
자정시 02-310-1555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218-5331

스퍼리트로 유한형
아사시테 이세방, 김두서 에티어 아리엔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질투는 나의 힘, 예술가들의 우정과 사랑 속에서 불타던 경쟁

올가을 개봉 예정작인 <파이널 포트레이트>는 위대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피카소가 질투했던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한다. 피카소가 자코메티를 높이 평가한 건 사실이겠지만, 사실 그의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아티스트는 앙리 마티스였다. 둘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예술가로서 성장해나갔다. 실제로 피카소는 "내 그림의 뼈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마티스다. 그는 나의 영원한 멘토이자 라이벌이다"라고 했다고, 마티스 역시 피카소를 늘 주시했다. 이 같은 경쟁 관계는 반드시 대등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단 두 명의 감정만 반영되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술혼에 긍정적 추동력이 된 경우도 많다.

해마다 여름이면 '모객'에 소매를 건어붙이고 나서는 건 비단 영화관만이 아니다. 지구촌 곳곳의 내로라하는 미술관들도 정성 들어 마련한 '블록버스터' 전시로 관람객의 발길을 유혹한다. 그중 한 전시로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에서 얼마 전에 막을 내린 <All Too Human>을 통해 스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20세기 영국 현대미술의 두 거목 루치안 프로이트(Lucien Freud)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다. 나이 차가 10년 넘게 나는 두 작가는 20세기 중반 런던에서 만나 오랫동안 교분을 쌓았다. 전쟁 직후 런던 소호(Soho)의 바와 클럽을 누비며 거의 매일 보드시피 하는 '절친' 관계였던 둘은 미학적 일관성은 별로 없었지만, 여러 면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경쟁의식을 느끼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테이트 브리튼의 <All Too Human> 전시에 소개된 작품 중에도 프랜시스 베이컨이 특유의 그로테스크함을 담은 루치안 프로이트의 초상이 있다. 1965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전시 이래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후 대중 앞에 다시 공개됐다는 이 작품 이미지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프로이트와 베이컨의 관계를 다룬 흥미로운 책의 일화를 비롯해 비슷한 맥락으로 엮일 수 있는 서너 가지 단상이 뇌리를 잇따라 스쳤다. 친구인 듯, 경쟁자인 듯 아티스트로서의 삶에서 서로 뚜렷하게, 혹은 은근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사에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긴 거장들의 라이벌 구도가 그 공통분모였다. 먼저 20세기 중반의 런던으로 가보자.

런던인들의 우정 속에서 꽃핀 예술적 지아

프랜시스 베이컨과 루치안 프로이트는 '캐릭터'는 사뭇 달랐지만 베를린과 런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2011년 타계한 루치안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손자로, 베를린에서 태어났지만 나치를 피해 1933년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건너갔다. 1909년 생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일랜드 더블린 태생이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닫고는 여장 등 '기행'으로 비칠 만한 행보를 일삼다가 부유한 농장주로 엄격한 성향인 아버지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10대 중반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삼촌 집으로 쫓겨났다. 그러다가 1929년 런던으로 향한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가 화가로 전향한 그는 예술성에 있어 늘 자기비판적이었고 자주 자신의 그림을 파기해버렸지만, 1944년 세폭화 '십자가'에 인물을 위한 세 습작으로 일찍잡지 화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1940년대 중반 루치안 프로이트를 런던에서 만난 그는 술과 미식, 도박을 함께 즐기면서 일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둘의 성향은 매우 달랐다고 한다. 베이컨은 사교적이고 카리스마 강한 인물이라 항상 주위에 사람이 넘쳐났고, 우아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프로이트는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여성 편력이 대단했다. 둘 다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작업 방식이 판이했다. 프로이트가 모델이 괴로움을 호소할 정도로 그리고 꼼꼼하게 그림을 그린 데 반해 베이컨은 반복하는 직관력

으로 아주 빨리 작업을 해지었다. 프로이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 일찍 스타로 부상한 베이컨을 좋아하고 존경했고, 그의 과감한 예술적 면모와 매력적인 성격 등을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했다. 1952년 베이컨의 작은 초상을 그렸는데, 이 작품이 1988년 베를린 전시에서 도난당했을 때 매우 실망해 2001년 런던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전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부디 도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내걸었다. 폴리처상에 빛나는 저술가 세바스천 스미(Sebastian Smee)가 쓴 <The Art of Rivalry>라는 책을 보면 프로이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베이컨)의 작품은 내게 감명을 줬지만 그의 성격은 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바스천 스미는 프로이트가 베이컨의 영향으로 그림을 중단하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성숙한 스타일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존경했던 피카소와 마티스

20세기 중반을 수놓은 런던인들의 우정이 한 사람의 선망 어린 경쟁의식에 무게중심이 더 기운 경우라면, 이보다 살짝 앞선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서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은 세기의 라이벌 구도가 있었다. 바로 20세기 현대미술사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다. 스페인 출신이지만 파리를 위시해 주로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피카소와 프랑스 출신인 마티스는 역시 열 살 이상 나이 차가 나는 데다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었지만 업계 동료로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았고, 이것이 둘에게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고 평가된다. 그 첫 계기는 20세기 초 파리 문화 예술계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했던 스타인 남매였다. 당시 인목 높은 컬렉티자 예술가들의 친구였던 거트루드 스타인과 리오 스타인의 파리 집은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는데, 피카소와 마티스 역시 단골손님이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티스트가 서로에 대해 의례적인 찬사는 하지만 은근히 후하지 않은, 묘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아프리카 나무 조각을 스타인 남매의 집에 들고 온 마티스를 보고 피카소가 전율을 느끼고는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또 마리 테레즈(피카소의 연인 중 한 명이었던 뮤즈)를 그린 '뿔'(1932) 같은 작품은 이국적인 벽지 무늬와 원색 범벅의 색조 등 마티스적인 요소를 너무나 강하게 담고 있어 선배 화가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 평가도 있다. 이에 마티스는 잠든 마리 테레즈에 대한 피카소의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 '뿔'(1935)에 차용하되 선보다 색채를 강조하는 식으로 나름의 미학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실 베이컨과 프로이트 못지않게 이 둘 역시 사뭇 다른 캐릭터였다. 피카소는 강박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인 데 반해 마티스는 호감형에 예의 바른 신사형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 '삶의 기쁨'보다 더 큰 화단에 피카소가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린 걸 보고 마티스는 자제력을 잃고 화를 냈다는 후문도 있다. 이렇듯 둘은 경쟁의식도 있었지만 갈수록 서로를 인정하고 나중에

는 그림도 주고받을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사진작가 겸 화가였던 브라사이의 말을 인용하자면 "둘은 서로의 작업을 견제하는 경쟁자이자 무기를 함께 든 형제였다"고.

남프랑스 빌라를 배경으로 일어난 건축가들의 대립

비슷한 시기에 남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질투심과 선망 속에서 썩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주인공은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듣는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와 아일랜드 그레이(Eileen Gray). 아일랜드 그레이는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디자이너로 20세기 가구 경매 최고가 기록을 갖고 있는 의사 등 세기의 디자인을 남기며 건축사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인물이다. 그녀는 연하의 남자 친구였던 장 바도비치(Jean Badovici)를 위해 프랑스 코르다쥐르 지역에 자리 잡은 평온하고 수려한 분위기의 마을인 로크브뤼-카프-마르탱(Roquebrune-Cap-Martin)에 장방형의 새하얀 빌라를 지었다. 1929년 완공된 이 빌라는 둘의 이름을 조합해 'E-1027'이라 명명되었다. 건축 잡지의 편집장이던 장 바도비치가 자신의 잡지에 소개하면서 나름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 빌라는 그의 친구이자 아일랜드 그레이와도 친분이 있었던 르 코르뷔지에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 빌라는 흥미롭게도 르 코르뷔지에의 근대 건축 5요소를 잘 반영해졌고, 실내 공간은 아일랜드 그레이의 디자인 솜씨가 여실히 발휘해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맛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날에도 스테디셀러인 사이드 테이블 'E-1027'이라든지 비벤덤 암 체어(Bibendum Arm Chair) 같은 디자인 가구와 센스 있는 소품으로 채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그레이는 1931년 장 바도비치와 헤어지면서 이곳을 떠났고, 이 마을에 자주 들렀던 르 코르뷔지에는 E-1027 빌라에 묵으면서 '사고'를 쳤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감정이 강했던 것인지, 아일랜드 그레이의 허락도 없이 새하얀 벽에 7점 정도의 프레스코화를 그려 넣은 것이다. 심지어 발가벗은 여자들을 묘사하며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그림이었다(아일랜드 그레이는 레즈비언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떤 장식적인 그림도 달거나 벽에 그려 넣기를 원치 않았던 그레이는 분노했고, 자신이 존경하지 않던 르 코르뷔지에와의 연을 끊었다. 안타깝게도 이 빌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망가진 채 경매에 나왔는데,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품에 안길 뻔하다가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스위스 출신의 재력이 여성의 손에 넘어간다. 르 코르뷔지에가 경매계의 끈을 활용해 '작업을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빌라의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다. 르 코르뷔지에가 여름마다 찾으면서 여생을 보냈던 4평짜리 오두막도 바로 이 빌라 근처에 있다. 물론 아일랜드 그레이가 건축물 2점을 남긴 데 비해(디자이너로서도 생애 후반부에 재평가되면서 진가를 인정받는다), 르 코르뷔지에에는 진정한 건축계 거목으로 우뚝 섰지만, 적어도 남프랑스 빌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레이가 선망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양대 산맥, 잭슨 폴록과 빌럼 더 코닝의 우정과 사랑

동시대의 미국으로 건너가면 사랑과 우정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대립 구도는 추상표현주의 화가들 사이에서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역시 오늘날 경매에서 뉴스를 쏟아내는 작가인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빌럼 더 코닝(Willem de Kooning)이 그 주인공들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태생(1904)인 더 코닝은 1926년 미국에 밀입국해 한동안 페인트공으로 생계를 잇기도 했지만, 화가로 성공해 90세 넘도록 장수했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잭슨 폴록은 대조적으로 무명 화가에서 불모를 쏟으면서 그리는 '드래핑 페인팅'으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지만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고, 차 사고로 40대에 요절한 비운의 화가다. 폴록과 더 코닝은 친한 친구였지만 둘 사이에는 복잡한 경쟁의식과 사랑이 끼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폴록이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연인 루스 클리그먼(Ruth Kligman)이 있었다. 슬럼프에 빠져 있던 잭슨 폴록에게 위안을 준 미술학도 루스 클리그먼은 폴록을 사랑에 이르게 한 차 사고 때 동승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런데 폴록이 사망한 후 1년쯤 지났을까, 루스 클리그먼은 자신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냈던 더 코닝의 연인이 됐고, 이 관계는 7년간 지속됐다. 폴록은 죽은 이후에도 미국 회화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인정됐다(그가 사망한 1956년 이듬해에 뉴욕 MoMA에서 회고전이 열렸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시회가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The Art of Rivalry>의 내용을 보면 클리그먼은 나중에 비방록을 집필했는데, 폴록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는 내용이었다. 생전에 폴록의 재능에 강한 경쟁의식과 질투를 느꼈다고 익히 알려진 더 코닝은 친구가 사망한 직후 "나는 잭슨이 무덤 속에 있는 걸 봤다. 그는 죽었고, 끝났다. 내가 넘버 원이다"라고 말한 뒤 정원에 가서 눈물을 쏟았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더 코닝은 여러 면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갈수록 예술가로서 빛을 발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현대미술계의 거목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부터 고갱-고흐, 마네-드가 등 시대를 불문하고 예술사에는 술한 친구-라이벌 구도가 펼쳐져왔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미술만이 아니라 장르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풍경일 것이다. 특히 인간에게는 자기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향 때문에 가까운 이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리학자들도 주장하듯이(또 역사에서 증명되어왔듯이) 질투는 삶의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 <질투의 민낯>의 저자 지그리트 앙겔브레히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질투가 불가피하다면 상대방을 동정하고 축하해주면서 부러움을 발전의 원동력을 삼는 선명적 질투, 다시 말해 '하얀 질투'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SI** 글 최경연

create an Art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이 담긴, 존재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예술품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EYOND
LIMITS**
MILLIE BOBBY BROWN, ACTRESS
#MONCLERBEY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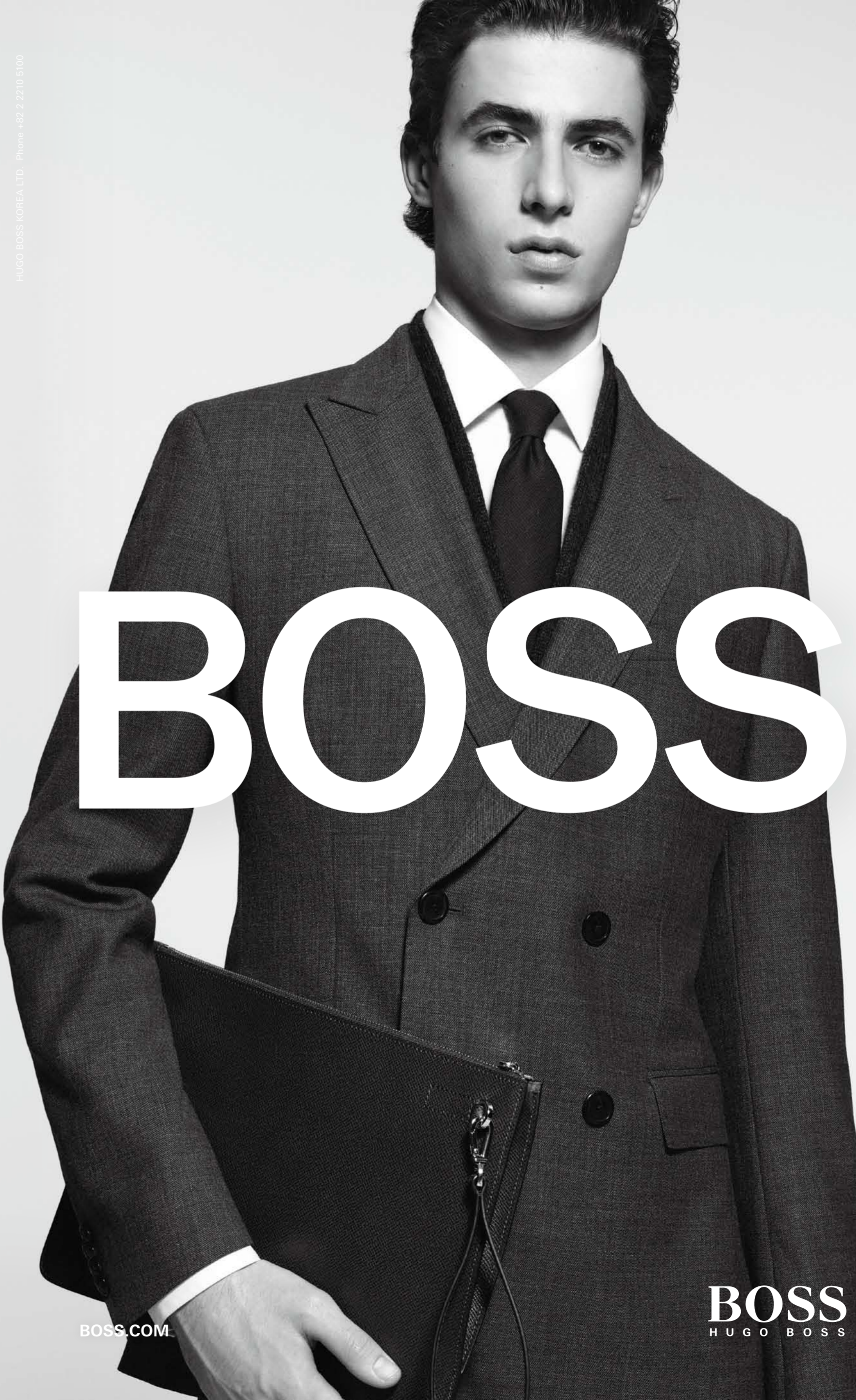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호를 모티브로 비드송의 상상력을 표현한 블루북 컬렉션 중 씨 라이프 컬렉션 브레이슬릿, 라운드 이코아린을 센터 피스로 세팅해 볼륨감을 극대화했다. **타파니**, 태슬과 옷핀을 모티브로 스타일리시하게 완성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컬렉션이다. 정교하게 세공한 다이아몬드 세팅을 실크의 촉감처럼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착용감도 뛰어나다. 모두 **에르메스**, 목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불꽃이 피어 나는 모습을 표현한 파운틴 컬렉션 네크리스. 남양 흑진주에 블랙 스파넬, 투르말린, 가시, 시트린으로 아름다운 빛의 컬러를 완성했다. 타사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이다. 5.5mm 최상급 아코아 진주에 추상적인 디자인의 별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어반스트레 스타 롱 비드 네크리스. 모두 **타사키**, 신인장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주얼리로 표현한 라투스드 까르피에 링. 아름다운 블루빛 라피스 라줄리로 신인장 꽃을 세공해 더욱 유니크하다. 브랜드의 아이콘이자 감각적인 하이 주얼리의 상징인 밴드 드 까르피에 네크리스. 그린 컬러 에메랄드로 눈을 표현해 강렬하다. 5.68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모두 **까르피에**, 에디터 **베미진**

Timeless charming

여성 위치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도 그 빛이 바래지 않는다. 손목 위에 작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클래식한 여성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펜더 드 카르띠에 워치 1900년대 탄생해 이젠보다 더욱 아름다운 자태로 다시 등장한 펜더 컬렉션, 유연한 브라이슬릿과 직관적인 디자인이 보는 순간 저절로 손길이 가게 한다. 어떤 스타일에 나날 어울리는 티몬리스워치 워치의 대표작이다. 2천7백만 원대. 문의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워치 단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또 있을까,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하는 네 잎 무늬를 워치로 구현한 티몬리스 디자인의 주얼리 워치로, 소장 가치가 높다. 1천5백만 원대. 문의 00798-862-16123 블랑팡 필라미네 데이트 문레이즈 레드 골드 스템에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적용한, 진정한 시계의 매력을 아는 여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워치다. 날짜 인디케이터와 사피이어 소재의 문레이즈, 48개의 플랫 다이아몬드 세팅까지, 기품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췄다. 셀프와인딩 칼리버 913QL을 장착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67 브리튼 레인드 네이플 미니 8928 우아한 33x24.95mm 사이즈 다이얼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클래식 워치, 실리콘 백린 스프링을 갖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Calibre 586/1을 탑재했다는 것도 다른 여성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다. 우아한 레드 컬러 스트랩이 매력을 더한다. 4천5백만 원대. 문의 02-6905-3571 몽블랑 보헤미안 데이트 오토매틱 28mm 사이즈 다이얼에 6시 방향에 위치한 창을 통해 날짜를 표시하는 우아한 디자인이다. 다이얼 중심에 아름다운 조개 모양의 기호세 페타이 무아형을 강조한다. 백셀에 총 62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1천4백만 원대. 문의 1670-4810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목보적인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위치 컬렉션. 1960년대 출시된 컨스텔레이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실크 패브릭 패턴이 아름답다. 27mm 케이스 사이즈, 스테인리스 스틸 브라이슬릿, 칼리버 1376을 장착했다. 5백만 원대. 문의 02-511-5797 불가리 세르펜티 인코네티비 워치 손목 돌려볼 휘감았던 뱀 모티브를 라운드 워치의 케이스를 둘러싸는 것으로 재구성한 예술적인 워치. 30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플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0 에디터 베버린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9100

BOSS

BOSS.COM

BOSS
HUGO BOSS

(왼쪽부터) 길을 때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체인 태슬이 포인트인 강렬한 레드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 클러치 체인 이브닝 백, 22X16cm, 2백60만원대 로저 비비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인트렌치아도 우렁찬 무늬를 새겨 넣은 컬러 그래픽이 선 이미 돋보이는 라운드 토 펌프스 83만원, 부드러운 옐로 나파 가죽과 이국적인 에어어스 레더를 30이 완성한 풋 클러치, 20X12cm, 3백27만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시원스러운 리본 장식의 핑크 새틴 미들 힐 87만원 자만비토 로시 by 분다삼, 주얼을 매지한 슬림백 힐 1백58만원 쥬세베 지노티, 플라워 자수와 진주 장식의 아우라진 펌프스 1백86만원 자만비토 발리.



Elegant night

특별한 자리에서 여성을 더욱 빛내줄,
브랜드 저마다의 절정에 이른 크래프트맨십이
돋보이는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의 이브닝 백 & 슈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알코에 빈짚이 스톤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시스루 스타일의 펌프스 힐 1백60만원대 톨 포트, 기쁨을 휘감은 벨 모티프가 애혹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클러치 백, 20X16cm, 1백78만원 쥬세베 지노티, 이국적인 플로럴 장식이 돋보이는 스크 리얼 바로코 힐 2백10만원대 로저 비비에, 파격적인 디자인의 진주 디테일로 꾸민 클러치 백, 15X10cm, 4백83만원 지미추, 마이크로 사이즈의 스파이크 장식을 더한 앵글 스트랩 샌들 1백33만원 발렌티노 가라베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 스트랩이 매력적인 메달릭 골드 색상의 미니 백, 12X22cm, 2백1만원 마우미우, 에디터 이자현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분다삼 02-2056-1234
쥬세베 지노티 02-543-1937 자만비토 발리 02-6905-3357 톨 포트 02-6905-3640
지미추 02-3443-9469 발렌티노 가라베니 02-543-5125 마우미우 02-3218-5331



스타일링: 조영희, 이소은, 이예림, 김은서



녹용에서 천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천녹 

the Elegance of Monaco

기수와 말이 각인된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한 1878년부터 이어져온 승마에 대한 론진의 길고 긴 스토리. 올해 모나코에서 펼쳐진 론진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 (Longines Global Champions Tour)에서 만난 론진의 앰배서더 정우성과 론진, 승마 챔피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Longines Conquest Replica

아름다운 모나코의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모습을 드러낸 론진의 앰배서더 정우성이 착용한 워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브랜드의 헤리티지 워치, 콘퀘스트 레플리카다. 통금이 솟아오른 문모 유리와 화살촉 모양의 인덱스, 프랑스 황제의 칭호를 상징하는 헨즈가 클래식한 매력을 완성한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Cal. 633을 탑재했다.





Longines Record

배우 정우성이 착용한 워치는 이번
런칭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의 대표 워치인
레코드다.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에서 공인한 런칭 최초의
제품으로, 별도의 인증서를 함께 제공한다.



Longines Record

(왼쪽) 론진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 부스에 설치된 론진 매장을 찾은 정우성의 모습. 역시 레코드 위치를 착용하고 있다.



Longines Lindbergh Hour Angle

(오른쪽) 하판 다이얼 직경이 47.5mm에 달하는 론진 린드버그 아워 앵글 워치는 브랜드의 헤리티지 컬렉션을 대표하는 제품이다. 미국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세운 33시간 30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 기록을 축성한 론진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다.





Longines Record

론진 레코드 위치를 착용하고 경기장을 둘러본 후 관람석에 자리 잡은 배우 정우성의 모습. F1과 ATP 마스터스 테니스 대회를 주최하는 모노코에서 열리는 론진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는 가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노코의 왕자 알버트 2세와 왕족, 세계 지도자와 유명 인사가 참석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올해는 론진 앰배서더로서 유일하게 정우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가 끝난 후 정우성이 앰배서더 자격으로 알버트 2세 왕자와 이변 행사를 주최한 모노코의 공주 샬럿 카사리기와 함께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해어 태양
메이크업 배경란
스타일리스트 김혜정
에디터 배미진



돔 페리뇽 x 레니 크라비츠

When icons Collaborate

돔 페리뇽(Dom Pérignon)을 가리켜 누군가는 '샴페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샴페인의 여왕'이라 부른다. 이러한 견해 차는 저마다 다른 연상 작용과 기증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프레스티지 빈티지 샴페인의 상징과도 같은 이 강력한 브랜드에 관련해 적어도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게 있다. '창조적 협업의 고수'라는 점이다. 세기의 아티스트 앤디 워홀을 '슈퍼 팬'으로 뒀던 역사를 지닌 브랜드답게 패션계의 살아 있는 전설 칼 라거펠트, 창조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현대미술계 '악동 스타' 제프 쿤스 등 내로라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손잡고 화제를 모아왔다. 이번에는 미국의 록 스타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다. 그것도 단순한 모델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격이다. 프랑스에서 그 현장을 보고 왔다.

지난 5월 초 대다수 파리지역이 연휴를 즐기러 떠나는 바람에 아주 한적하고 평온하기까지 했던 어느 날 아침, 파리 8구의 명소 개신문 근처에 자리한 로열 몽소(Royal Monceau) 프라이빗 시네마. 이곳에 묵근묵은 물론 핑크, 블루스, 술,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올라운드 뮤지션으로 통하는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가 나타났다. 레게 머리에 선글라스, 나팔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채 전 세계에서 초청된 40여 명의 기자단을 향해 "좋은 아침(bon jour)"이라며 특유의 나지막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록 스타. 그런데 이날 그의 미션은 공연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샴페인 브랜드 돔 페리뇽(Dom Pérignon)의 새 광고 캠페인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포토그래퍼, 디자이너로서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프로젝트 개요를 발표하는 자리'였으니 말이다. 레니 크라비츠 팀이 앞서 미국 LA에서 진행했다는 촬영 영상은 웬만해서는 절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콘텐츠임이 분명했다. 할리우드의 맨션을 배경으로 페나 익숙한 얼굴,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묘하게 이색적인 조합을 이룬 채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는 흑백의 파티 풍경. 그의 카메라에 담긴 인물들은 (앨마와 루이스) 등 주옥같은 영화로 잘 알려진 명배우 수전 서랜던(Susan Sarandon), 관록의 연기파 배우 하비 케이트ل(Harvey Keitel), 스타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영화 <블랙 스완>의 인물이자 파리 오페라의 무용감독인 벤저민 마일피드(Benjamin Millepied), 눈에 띄는 미모의 패션모델이자 배우 애비 리(Abbey Lee), 그리고 축구 스타 출신의 자신사업가 나카타 히데토시(Hidetoshi Nakata), 여기에 레게 스타일의 곱슬머리를 한 젊고 발랄한 아가씨가 분위기를 이끌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바로 레니 크라비츠의 딸이자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 출연하기도 한 조 크라비츠(Zoe Kravitz).

영상 위로 레니의 음성이 낮게 깔린다. "이것이 단지 파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If you think this is just a party, I think you are mistaken)". 이어지는 그의 설명

2



1 다채로운 미국의 슈퍼스타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가 이끄는 크라비츠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맡은 LA의 한 지역에서 열린 돔 페리뇽 샴페인 파티의 한 장면. 레니 크라비츠가 자신의 딸 조 크라비츠와 세계적인 안무가 벤저민 마일피드(Benjamin Millepied)가 춤추며 즐겨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Photo by Mathieu Bitton 2 조 크라비츠(가운데), 영화배우이자 모델 애비 리(Abbey Lee), 그리고 오스카에 빛나는 명배우 수전 서랜던(Susan Sarandon)이 함께한 모습을 담은 'Girl Power'. Photo by Lenny Kravitz 3 레니 크라비츠는 영화, 패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재능이 한데 모여 영감을 주고받는 데서 나오는 창조적 힘을 믿는다. 'La Cène' by Lenny Kravi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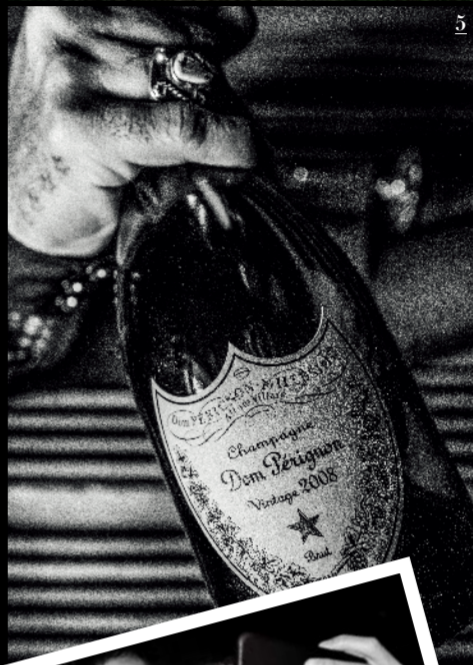
3



인즉슨 "이런 장소에 모인 게스트들은 뜻밖의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결합을 위한 재료 역할을 하게 된다"고. 패션, 음악, 무용,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중사하는 자신과 딸의 친구·지인이 섞여 있는, 확실히 흥미로운 상상물이기는 하다. 사실 레니 크라비츠는 자신의 딸을 끌어들이는 생각이 없었는데 조가 흔쾌히 나서겠다고, 덕분에 생긴 처음 부녀가 일을 같이 해봤다고.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조와 친구였어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졌죠." 레트로 감성이 다분히 묻어나는 영상의 콘셉트는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뉴욕의 나이트클럽인 스튜디오 54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또 파티의 배경이 된 장소는 레니 크라비츠가 이끄는 크라비츠 디자인(Kravitz Design)이 디자인을 맡은 자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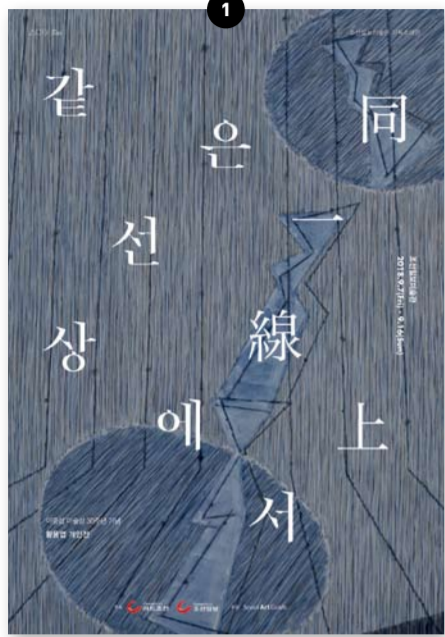
연결하고, 결합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혁신, '다름의 미학'
편견 없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예기치 않게 영감을 주고받는 만남. 이 파티의 주제는 사실 언뜻 진부한 클리셰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레니 크라비츠의 DNA와는 꽤 잘 어울린다. 크리스천에 흑인 배우인 엄마와 유대인과 러시아계 백인 아버지를 둔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 맨해튼 생활을 누리면서 유복하게 자라났지만 주로 브루클린 지역에 사는 외가 사람들과 어울렸던 터라 '블랙 감성을 듬뿍 채득했다(그가 처음으로 가본 콘서트도 '잭슨 파이브'였다). 그러다 또 다른 문화적 중심지인 LA로 이주했고, 소년 합창단에서 고전을 악과 오페라를 접하는 등 다양한 지양분을 흡수했다. 타고난 재능과 운에 힘입어 대중음악의 장에서 일찍 성공한 편이지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다. 저명한 음악 평론가 앤서니 디커티스가 표현했듯이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블랙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화이트인 그의 피부색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복합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음악적으로나 다른 분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다양성으로 잘 소화했다. 그의 음악 장르가 다재로운 것도, 재능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는 것도 '다름의 미학'을 포용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발전시킨 덕분에 아닐까. 레니 크라비츠가 사진을 접하게 된 것도 성장 배경이 나 스타로서의 삶을 보면 숙명적인 귀결이지 싶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갖고 노는 바람에 아버지의 화를 복돋고는 했죠." 특별히 사진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위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들이 많았다. 포토그래퍼 친구인 마크 셀리거(Mark Seliger)에게 기초를 배웠고, 어느덧 사진은 그에게도 중요한 취미가 됐다. 하지만 주로 플래시 세례를 받다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렌즈를 들어대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 어느 해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도 카메라를 맞대면서 셔터를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짜증을 내기보다 즐기자는 심정으로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어 그는 파카라치와 팬들의 모습을 가득 담은 사진집 <Flash>(2015)를 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가 브랜드 캠페인에 자신의 이미지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정과 교감이 낳은 창조적 협업의 결실
다재로운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게 돔 페리뇽의 핵심인 것 같으면서 '커넥팅(connecting)'의 힘을 강조하는 레니 크라비츠는 실제로 3백 년도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샴페인을 '애정해왔다고 했다.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처음 돔 페리뇽을 마셔본 건 고등학교일 때였을 거예요." 음주 연평을 어겼음을 슬쩍 고백한 그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우연히 돔 페리뇽에 맛을 실컷 들이게 됐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이국적이고 값비싼 샴페인인 만큼 자주 접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돔 페리뇽이라는 브랜드에 보다 깊은 관심을 품게 된 계기는 그의 친구가 된 돔 페리뇽 셀러 마스터(수석 와인메이커) 리샤 지오프로이(Richard Geoffroy)와의 인연이다. 11, 12년 전쯤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된 이들은 여러 면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했다고, "예술성, 아티스트적 기교에 대한 접근 방식과 자기 훈련 등에서 핵심이 닮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샴페인과 와인 같은 것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음악과 아트를 대하는 방식이 말이죠." 열 살의 나이 차에도 '절친'이 된 이들은 함께 돔 페리뇽의 와인 저장고를 방문하기도 하고 언젠가 협업도 해보자는 얘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다가 리샤가 은퇴하는 올해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실제로 리샤 지오프로이는 이 행사 이후에 은퇴를 전격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레니 크라비츠가 직접 작업에 참여한 결과물은 돔 페리뇽의 와인 셀러가 있는 상페뉴 지역의 돔 페리뇽 하우스에서 일부 공개됐다. 바로 3백50년 전 '샴페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에르 페리뇽 수사가 근무하며 돔 페리뇽을 창조해낸 오빌레 수도원(Abbey of Hautvillers)이 자리한 곳이다.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이곳에서 올해 캠페인의 주인공인 돔 페리뇽 빈티지 2008을 위한 페어링 만찬을 끝낸 뒤에 그는 흑백으로 인화한 레니 크라비츠 팀의 사진 작품을 둘러보며 직접 소개했다. 순간의 분위기와 표정을 포착한 흑백사진은 확실히 영상과는 다른 오라를 풍긴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냐는 질문을 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딸을 찍고 있는 내가 거울에 비춰지는 사진이요. 일종의 '부녀만의 순간'이랄까요." 이렇게 답하면서 살짝 수줍은 미소를 띠는 레니 크라비츠의 영감 어린 작품은 오는 가을 런던, 밀라노, 도쿄, 홍콩, 베를린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글 **고성연**·사진 **오빌레 현지 취재**



4 돔 페리뇽 하우스의 포도밭이 있고, 브렌드의 기원인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오빌레 수도원에서 포즈를 취한 레니 크라비츠. Photo by Mathieu Bitton 5 레니 크라비츠 팀이 이끈 올해 돔 페리뇽의 광고 캠페인. Photo by Lenny Kravitz 6 오빌레 수도원 건물 외관. Photo by Lenny Kravitz 7 레니 크라비츠가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마티외 비통(Mathieu Bitton)과 함께 이끈 돔 페리뇽의 광고 캠페인을 위한 이미지. LA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레니 크라비츠와 딸 조 크라비츠의 친구와 자판들이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Photo by Lenny Kravitz 8 돔 페리뇽 빈티지 2008을 사용하는 레니 크라비츠의 모습. Photo by Mathieu Bitton

8



1 이 중섭미술상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2018 아트 존 온 스테이지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된 황용엽의 개인전 <같은 선상에서>. 2 황용엽, <인간(1975)>, oil on canvas, 130.3x97cm. 3 황용엽, <어느 날(2018)>, oil on canvas, 130.3x162.2cm. 4 황용엽, <어느 날(2017)>, oil on canvas, 116.8x91cm.



캔버스에 담긴 황용엽의 '삶의 증언'

인간이 숙명적으로 겪는 고통과 절망, 치유와 회복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캔버스에 담아내는 황용엽. 60년 넘도록 시류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해온 지화상 같은 인간상은 그가 살아온 인생인 동시에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대변한다. 1989년 제정된 이중섭미술상의 첫 번째 수상자이기도 한 황용엽의 개인전은 일관된 주제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노장의 아름다운 예술혼을 느끼게 한다.

단지 노장이라는 사실이 품격과 깊이를 말해주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 속에 단단히 여문 내공과 지혜가 어우러진 노장의 작품에는 형언하기 힘든 감동이 있다. 더군다나 나이에 이렇듯 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 열정이 넘치는 예술가의 품도는 경외감마저 일으킨다. 올해로 여든여덟의 나이, 화가의 길에 들어서지 60여 년이 된 작가 황용엽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이들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그를 바라볼 것이다. '인간(人間愛)'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황용엽의 예술에 대한 끝없는 갈구를 엿볼 수 있는 오는 9월의 전시 <같은 선상에서>를 주목할 만한 이유다. 이중섭미술상 제정 30주년 기념전이자 1호 수상자(1989년)인 그의 28번째 개인전이다.

인간을 그리고, 인간성을 담다

"인간성의 추구는 내 화필이 끊이지 않는 한 결코 변할 수 없는 나의 명제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변화는 있지만 황용엽은 늘 인간을 연구하고 그려왔다. 스스로 '삶의 증언'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931년 평양 출생인 황용엽은 일제강점기, 분단 등으로 점철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거치며 여러 굴곡 속에서도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구축하고 꾸준한 창작혼을 불태워왔다. 청년 시절 북한의 징집을 피해 월남을 감행한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총상을 입고 제대해 생활을 위한 또 다른 전장에서 던져졌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해 추상화의 대가 김환기 교수를 사사했다. 근현대 한국 화단을 휩쓴 불교와 불교적 미니멀리즘과 차별되며 황용엽은 초기 작품부터 묘사적이거나 설명적인 것과는 거리를 둔 구상 회화를 추구했고, 1960년대에 이미 독자적인 화풍을 창안했다. 이 시기에 간신히 식별 가능한 개별 형상이나 인간의 형태를 실루엣과 얼굴로 축소시킨 '여인 시리즈'가 그렇게 탄생했다. 인물을 보는 것인 추상적 표현을 보는 것인 알 수 없을 정도로 '재료에 갇힌' 듯한 캐릭터,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투영한 듯한 붉은색, 황토색, 갈색 등의 색채를 보면 월렛 쿠닝이나 잭슨 폴록 같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를 떠올리게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푸른색과 녹색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며 '인간을 담아냈는데, 유신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했는지 공포와 비인간적인 인간상을 그려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선으로 도식화된 회색과 갈색 등의 단색조 그림을 그렸는데, 미니멀리즘의 요소를 담고 있고 거의 추상에 가까웠다. 이 시기의 '인간' 시리즈는 한국적 모더니즘과 같이 반복된 선과 패턴을 담되, 작가 특유의 이념과 형식으로 인간상을 구현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0년대에는 다양한 전통 문양과 민화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색채가 밝아지고 형상에 생동감이 더해졌으며 보다 구체적인 인간상이 나타났다. 1989년에는 조선 일보에서 새로 제정된 이중섭미술상의 첫 수상자가 되었고, 이는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1990년대부터는 활발한 작가 활동을 펼치면서 파란만장한 삶의 질곡이나 전쟁의 트라우마가 조금은 치유된 듯 생명력이 돋보이는 경쾌한 인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5년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린 19회 개인전 <황용엽-삶의 이야기>전에서 이 같은 경향이 더 다양하고 질게 드러났는데, 미술평론가 최병식은 '다각적 휴머니티로의 변신'이라는 표현을 썼다.

열정 어린 에너지가 느껴지는 신작

'인간'이라는 일관된 소재를 다루면서도 꾸준한 자기 성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는 황용엽의 이번 개인전은 그의 과거 작품은 물론, 열정으로 빛낸 신작 등 40여 점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신작의 경우 현대사적 요소를 형상화하고 선과 색이 간단해지고 단조로워진 점이 눈에 띈다. 1970년대 작품의 색감과 유사한 회색과 청색의 단색조가 주를 이루지만 밝고 가벼워진 느낌이다. 당시 간헐 있던 인간의 형태와 흡사하지만 더욱 도형적이고 한국적이며 토속적인 문양과 패턴이 더 과감하게 표현됐다. 특히 스키광인 작가가 활강하며 내리올 때 슬로프 위에 그려진 선을 캔버스 위에 담아냈다고 한다. 다양한 구도와 분할된 화면에는 각기 다른 스토리가 담겨 있는 듯하다. "세월의 흐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다줬다. 극한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는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모았던 나는 또 다른 실험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했던 황용엽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연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창조적 도전의 에너지는 그의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중섭미술상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2018 아트 존 온 스테이지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된 전시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다. 문의 아트 존 온 02-724-7832

사진: 김민서 아트 존 온

editor's Pick

가을을 맞은 지금, 당신의 화장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공개하는 뷰티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아르마니 마트 #403** 아르마니의 첫 번째 매트 립스틱을 기념하며 매트 파우더를 상충하는 무광 레드 컬러와 블랙이 어우러진 캐시부터 강렬한 인상을 준다. 초미세 랑-필링 테크놀로지가 입술 주름과 각질 사이를 촘촘하게 매워주어 완벽한 매트 립을 연출해준다. 호호 바 오일 생분해를 함유해 매트 립 특유의 건조한 느낌이 없는 컴포트 매트 효과를 선사한다. 4g 4만4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자현*

나스 클리닉스 마스크 마스크라 하면 한 번의 터치만으로 마치 여러 번 바른 듯한 볼륨감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터치해도 뭉침 없이 가볍고 편안한 촉감을 연출해준다. 벗기지 않아도 롱 웨이브 스킨 케어 시스템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질 없이 깔끔한 눈매를 유지할 수 있다. 6g 3만8천원. 문의 02-6906-3747. *by 에디터 권유진*

클로르 브론즈 & 글로우 피우어 02 핑크 글로우 얼굴의 윤곽을 강조할 수 있는 브론저와 은은한 윤곽을 표현하는 피우어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연한 톤의 클로르 피우어는 광대뼈와 볼에, 밝은 톤의 하이타이머는 콧대와 이마에 비르고, 어두운 톤의 브론저를 광대뼈 아래에 가볍게 터치해주면 작고 입체적인 얼굴 라인 완성! 14g 7만5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권유진*

라프래리 스킨 케어 리스 크림 프라이머 라프래리의 강력한 재생 효과는 익히 알고, 경량화한 이 제품은 케어에 담긴 총체적인 장점을 이룬다. 전날 밤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 충분히 마사지해서 발라주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감을 느낄 수 있는 물론 리프팅과 피싱 효과까지 느낄 수 있다. 50ml 6만1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이자현*

나르시소 로즈라즈 루즈 티오르는 꽃잎과 같은 새빨간 향수 보틀만큼이나 강렬하고 매력적인 향을 담았다. 레드 컬러를 테마로, 여성의 관능미를 표현한 이 향은 불가리아 로즈와 레드 아이리스가 만난 플로럴 어코드의 톤 노트를 시작으로 마스 크 향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톱카와 베베레, 블랙 사탕의 풍부한 앰버 우디 노트로 마무리된다. 90ml 15만8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자현*

다들 디올스킨 포어비 언더바 24시 웨이 콤팩트 웨이 베이스로 오래 지속되는 독특한 제형의 피오네이션. 다들의 크리에이티브 디테일 피어 필링스가 추구하는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한 제품이다. 블러셔나 립스틱, 아이섀도 같은 색조 컬러를 구현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을 베이스로 사용하면 좋다. 40ml 6만8천원. 문의 080-342-950. *by 에디터 배미진*

베메디 브로우 컨투어 프로 원하는 색깔을 눌러 사용하던 샷썸 블렌딩을 떠오르게 하는 유쾌한 디자인의 브로. 총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가장 밝은 컬러로 눈썹 시작부터 산 부분까지 빈 곳을 채우고, 어두운 컬러로는 울림을 더 해주며, 디피닝을 사용해 눈썹 위부터 이마쪽부분의 윤곽을 정교하게 살린다. 마지막으로 눈썹 뼈 아래 하이라이터로 입체감까지 더해준다면 4D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0.1g X 4 4만4천원.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이자현*

시슬리아 랭데그랄 안티에이징 퍼민 컨센트레이트 세럼 엘리스틴의 생성을 자극하고 피부 타이팅 효과를 뛰어난 안티에이징 세럼. 자극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브랜드 고유의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즉각적인 피부 긴장감을 높여주는 3D 텐서 효과를 내는 귀비 추출물이 들어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30ml 53만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배미진*

샤넬 비타미네르 글로우 루미나스 터치 피오네이션 SPF 19 패시뷰터 텍스처까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뷰티 커뮤니티의 마음을 사로잡는 샤넬의 신제품, 롱라스팅 카버를 위한 쿠션 매트. 카바라이 뷰티에 고 피부 톤을 화사하게 정리하는 데다 피부 속 깊이 촉촉하게 채워주는 글로 효과 덕분에 여러 번 덧칠해도 부담이 없다. 14g 7만9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샤세이드 더 웨이 케어 아쿠아 인텐시브 마스크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만족감을 주는 샤세이드 웨이 케어 제품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웨이 마스크. 프라임 웨이 케어 브랜딩이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제품인 만큼 믿을 만하다. 린스 단계에서 3~5분만 방치한 후 헹구어낸 미지 웨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것처럼 모발이 부드러워진다. 200g 5만6천원. 문의 02-555-8839. *by 에디터 배미진*

아디선 루즈 랭데그랄 아디선 엘프레스 오일즈 립스틱 마. 아이리먼 무조건 소장해야 할 필립스. 무려 10가지 각기 다른 질감과 컬러의 립스틱으로 구성되어 필립스 하면 립 메이크업 걱정 끝! 세계적인 알파스트라이더 디. 베. 히어로의 컬러베이션으로 완성된, 중국 테마로 한 매력적인 페이저 역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9g 8만6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권유진*

블리 1803 레 비자날 비디오스틴 옥살에 놀이주는 것은으로도 인테리어 효과를 특별히 발휘하는 감각적인 보물 디자인으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블리 1803. 영리한 사랑을 의미하는 엘비오로프의 꽃잎처럼 포근하고 따듯한 향으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플레이 향이 오래도록 지속돼 만족스럽다. 200ml 7만5천원. 문의 02-511-3439. *by 에디터 이자현*

클리닉스 마야 빗 클렌징 페이스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클리닉스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손으로 하는 세안보다 두 배 더 뛰어난 클렌징 효과로 대다수 여성들의 99% 제거하는 것은 물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롱라스팅 마이크로 세안 차 단까지 완벽하게 제거한다. 오일도 톤을 신장시키는 쉼스 에드레도도 효과적이다. 29만원. 문의 080-348-0090. *by 에디터 권유진*



SHOWROOM

FASHION

로저 비비에 2018~19 F/W 컬렉션의 새로운 유즈로 포피 델레바인 발탁 로저 비비에 2018~19 F/W 컬렉션 유즈로 배우이자 인플루언서인 포피 델레바인을 발탁했다. 매혹적인 컬러와 주얼 장식, 정교한 트라잉 등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F/W 컬렉션 룩을 적용한 포피 델레바인의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은 컬렉션 영상과 화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370

0914 태글스 앤 버클스 0914는 다양한 모양의 태슬 포인터를 다한 '태글스 앤 버클스' 라인을 출시했다. 소프트한 패들과 촉촉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 수베레토 소재를 제작했으며, 활용도가 높은 사철과 토트, 크로스 보디 스타일의 가방과 코트까지 아우치로 만나볼 수 있다. 슬라, 민트, 토프, 블랙 등 4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문의 02-2056-0914

콜로에 테스 백 콜로에는 2018 F/W 시즌을 맞아 테스 백을 새롭게 론칭했다. 둥근 형태와 영리한 여성상을 상징하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O링 메탈 장식이 돋보인다. 두께가 각기 다른 2개의 스트랩을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으며, 세피아 브라운, 닷, 딥 포레스트 등 매력적인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543-1737

브루넬로 쿠차넬리 남성 단독 매장 오픈 브루넬로 쿠차넬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첫 번째 남성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이탈리아 솔로메오 지역의 감성이 녹아 있는 편안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공간이다. 캐주얼한 느낌의 가죽 재킷, 브랜드 고유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니트웨어 등 우아하고 한층 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2018 F/W 남성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921



몽클레레 2 몽클레레 1952 몽클레레는 시즌과 세대를 초월한 8명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완성한 몽클레레 자니어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2 몽클레레 1952' 컬렉션을 선보였다. 브랜드의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제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볼드하고 편안한 컬러와 다양한 스타일의 로고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14-0900

보테가 베네타 팔리오 프란지 토트백 보테가 베네타는 2018 S/S 시즌에 선보인 팔리오 토트백에 감각적인 프란지 디테일을 다한 '팔리오 프란지 토트백'을 출시한다. 다크 레더와 네로, 27가지 컬러와 미니엄 사이즈로 선보이며, 매력적인 폭포 침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해 영하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38-7682

펜디 컷워크 부츠 펜디는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컷워크 부츠를 출시한다. 사부 스타일의 강렬하고 모던한 느낌을 담은 신제품으로, 바닥이 넓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옆면에는 브랜드의 로고를 유니크하게 수놓았으며, 조각적이고 기하학적인 굽의 형태가 가장 큰 특징. 하이힐, 미드 힐, 사이하이 등 다양한 스타일과 소재로 선보이는 펜디의 컷워크 부츠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해볼 것. 문의 02-2056-9023

브리오니 2018 F/W 컬렉션 브리오니는 정교한 장인 정신에 트렌디함을 더한 '2018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남성들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콘셉트로 해,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표현한 이번 컬렉션은 전통 자수 의 본고장인 루체르의 공예 아티스트 아오우이펜과 이색적인 협업 제품을 선보였으며, 늘씬한 실루엣의 스리 버튼 재킷, 캐시미어 디테일의 피코트, 쉘시 부츠, 처커 부츠 등 감각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3274-6483

에르노 4 포켓 라이트 패딩 재킷 에르노는 캐주얼하고 포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용 4 포켓 라이트 패딩 재킷을 출시한다. 은은한 광택이 있는 누아지 나일론을 사용해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4개의 포켓 디테일과 인형향 오픈 지퍼 및 누름 단추 잠금 방식을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문의 02-541-7235

버버리 스트라이프 리본 코트 개버딘 트렌치코트 버버리는 스트라이프 리본 디테일 장식이 특징인 '코트 개버딘 트렌치코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버버리 아이카미 스타일의 이중 버클 벨트와 하우스 체크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다룬 이 제품은 다가오는 가을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아이템. 워터프루프 코트 개버딘 소재를 사용하고, 빈티지 체크 안감과 여유로운 핏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인다. 문의 080-700-8800

미우미우 클레오 백 미우미우는 1960~70년대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2018 F/W 컬렉션에서 새로운 '클레오 백'을 공개했다. 여성스러운 시선 장식과 심플한 디자인에 티프한 체인 슬더 스트랩을 달아 여성의 강렬한 매력을 표현했다. 백 이름은 1960~70년대 영화 주인공의 이름들 모티브로 해서 지은 것이다. 문의 02-3218-5331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디오네 소프트 카프 백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는 브랜드의 아이코닉 백, 디오네 컬렉션의 신제품 '디오네 소프트 카프 백'을 선보인다. 소프트한 카프 스킨으로 제작했으며, 세이프가 내추럴하고 캐주얼하다.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며, 캔버스 소재의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문의 02-2230-1225

보스 맨 워셔블 수트 보스 맨은 세련된 워셔블 수트를 선보인다.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남성들의 스타일링을 책임진다는 브랜드의 사명감을 반영한 수트로,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로 제작했다. 모직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 세탁기로 세탁 가능하며, 세탁 후에도 보스 특유의 사프한 룩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올림피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톨링을 이번 캠페인의 모델로 발탁했다. 문의 02-515-4088



BEAUTY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르마니 톤 업 쿠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우아한 핑크 컬러를 담은 '아르마니 톤 업 쿠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고농축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한 보습 에센스가

생기 있는 톤 업 효과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하루 종일 촉촉한 수분광 메이크업을 완성해준다. 뛰어난 지속력과 커버력을 자랑하는 톤 업 쿠션으로 화사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볼 것. 문의 080-022-3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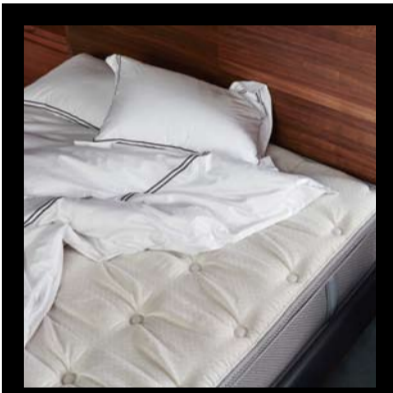
톰 포드 보이즈 앤 걸즈 컬렉션 톰 포드는 브랜드 특유의 독창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무드를 담은 '보이즈 앤

걸즈 컬렉션'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기존 20가지 컬러에 더해 새로운 30개의 셰이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총 57가지 텍스처로 선보인다. 강렬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보이즈 앤 걸즈 컬렉션은 톰 포드의 2019 S/S 뉴욕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79-1436

시슬리 시슬리아 랭데그랄 안티에이징 퍼밍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시슬리는 뛰어난 퍼밍 효과를 선사하는 '시슬리아 랭데그랄 안티에이징 퍼밍 컨센트레이티드 세럼'을 선보인다. 시슬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미조람 추출물, 페르시아 아카시아, 린데아 추출물과 같은 독보적인 핵심 활성 성분을 함유한 이 세럼은 피부를 더욱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것은 물론, 피부 긴장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한다. 문의 080-549-0216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크림 에스티 로더는 수면 부족, 자외선, 블루 라이트 같은 외부 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신제품,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수퍼차지드 콤플렉스'를 선보인다.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촉촉한 트리를 액션 포뮬러가 주름, 다크서클 등 눈에 나타나는 노화의 징후를 예방해주며, 연한 눈가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한 기때문이다. 문의 02-3440-2772

LIFESTYLE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시몬스는 오는 9월 16일까지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벨기에산 코트 100% 소재의 케노사 호텔 베딩 세트를 증정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매트리스부터 더욱 패시브-슬래핑 프라이밍까지, 둘만의 침실을 감각적으로 꾸며줄 시몬스의 웨딩 프로모션을 즐겨볼 것. 문의 1899-8182

불가리 뉴 디바스 드림 컬렉션 불가리는 매력적인 디바스 드림 컬렉션의 새로운 주얼리를 선보인다. 사파이어, 핑크 루블라이트, 에메랄드 등 진귀한 컬러의 젠스톤과 오픈워크 스타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여성을 상징하는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았다. 로즈 골드 소재의 네크리스, 이어링, 링 등 우아한 주얼리 컬렉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56-0171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몽블랑은 현대적인 탐험을 위해 제작한 1858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인 '1858 지오스피어'를 공개했다. 1930년대 미네르바의 손목시계와 포켓 워치를 재해석한 1858 컬렉션의 빈티지한 매력이 돋보이며,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해 빈티지 룩과 시계의 기능 모두를 중시하는 젊고 세련된 남성들을 위한 워치로 제작했다. 문의 1670-4810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입체적인 볼륨과 화려한 광채로 가득한 '베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하드 스톤과 다이아몬드가 자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유

서 깊은 골드 비즈의 전통과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탄생한 감각적인 주얼리를 선보인다. 문의 00798-852-16123

브레게 마린 알람 뮤지컬 5547 브레게는 3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마린 컬렉션의 새로운 워치, '마린 알람 뮤지컬 5547'을 공개했다. 알람, 세컨드 타임존, 날짜 기능을 갖춘 이 워치는, 아람 물질을 인한 비늘과 인덱스 덕분에 낮과 밤 언제나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새롭게 선보이는 티타늄 모델은 가벼운 착용감, 공기와 부식에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문의 02-6905-3571

리처드 밀 RM 25-01 리처드 밀은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과 협업해 탄생시킨 'RM 25-01'을 공개했다.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는 5등급 티타늄으로 제작했으며,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시계의 무게와 에너지 소비를 50% 감소시킨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스텔론이 특별히 요청한 나란한 기능을 적용했다. 천연 라바 소재의 카무플라주 스트랩을 사용해 모험을 즐기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512-1311



JEWEL & WATCH